## 슛케이엔에 대하여

슛케이엔은 아사노 나가아키라 별저의 정원으로, 나가아 키라가 히로시마 번주로서 봉토를 옮긴 이듬해인 1620년에 건 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만든 이는 다인으로 이름을 알 린 우에다 소코라는 중신이었습니다. 정원의 이름은 "수많은 경승지를 모아 그 축소판을 표현한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는 데, 일설에 의하면 중국 항저우의 서호를 모방한 것이라고 합 니다.

정원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10개 정도의 섬들이 떠 있는 다쿠에이치 연못, 주위에는 산과 계곡, 다리, 다실, 정자 등이 절묘히 배치되어 산책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워내를 돌아보 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정원은 회유식 정원이라 불리며 무로마치 시 대에 생겨났습니다. 최전성기는 에도시대 초기로서, 여러 다 이묘들의 정원 대부분이 이 방식을 취했습니다. 슛케이엔에는 멀리 보이는 산, 마을과 떨어진 계곡, 그리고 광대한 해안 등, 다양한 경치들이 가득 담겨 있어, 그로 인해 실제 정원 면적을 뛰어넘는 큰 스케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치가 각 계절의 분위기와 어우러짐으로써 슛케이엔이라는 이름에 걸 맞게 응축된 풍경과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못 중앙에 걸쳐진 고코쿄 다리는 원래 다른 모양이었으 나. 7대 번주였던 시게아키라의 명령으로 교토의 장인이 현재 의 모습으로 재건했다고 전해지며, 도쿄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의 엔게쓰바시나 교토 슈가쿠인 별궁의 치토세바시와 닮은 대 담하고 기발한 수법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정원의 거의 중앙에 있는 세이후칸은 정원에 걸맞은 스키 야즈쿠리 양식(다실풍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지붕은 고케라(얇은 판) 지붕입니다. 서쪽에는 우아한 서원 양식이 갖 추어져 있고 동쪽에는 고코쿄 다리가 보이는 화두창이 나 있습 니다. 이 건물은 아사노 집안 대대로 당주들에게 특히 사랑받 았습니다.

1945년에 원폭에 의해 정원이 파괴되었으나,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가 전쟁 이전의 경관을 되찾고자 정비를 추진해 세이 후칸, 메이게쓰테이 등의 건물도 복원되었습니다. 현재는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